

선행 지표 '최악' ... 기초 전자재 수요 5% 안팎 감소할 듯

- 시멘트 4,180만톤, PHC파일 420만톤, 철근 780만톤, 레미콘 9,600만m³ 수요 전망 -

김정석 | 건설경제 기자

을 해에 이어 내년에도 건설자재의 수요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건설시장이 살아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침체된 민간 건설경기는 건설자재시장에 치명적이다. 수요가 올해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철근을 비롯해 시멘트, 레미콘, 고강도 콘크리트(PHC) 파일 등 기초재의 수요 감소는 불가피하다. 물론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시장 흐름과 역행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당연히 공급이 넘친다. 자재를 구매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급이 부족해 자재를 사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시장 흐름에서 최근 불거진 동양그룹 사태와 전기료 추가 인상 문제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모두 공급자 측에서 발생한 문제지만 영향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의 수급 상황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그보다는 자재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 위축 여전

건설자재시장은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건설시장 상황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건설시장은 국내외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국내외 경제 상황과 건설시장 동향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내년 세계 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2%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의 경우 주택경기과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며 성장률이 2%대 후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신흥 개발도상국 경제도 올해와 비슷한 5%대 수준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달러화 강세와 국제 유동성 축소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 회복에 따른 수급 여건 개선, 재고 누적 등 다양한 요인이 있어 원자재 가격의 차별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기에 민감한 금속류의

경우 완만한 상승 곡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국내 경기는 내수 회복이 미약한 상황에서 3% 후반대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의 SOC 예산 축소 등으로 건설 투자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 등에 힘입어 민간부문은 주택 건설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부문이 걸림돌이다. 정부가 SOC 예산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24조 3,000억원인 SOC 예산을 해마다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내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공공 건설부문의 침체를 불러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건설 자재의 수요가 증가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건축허가면적 등 선행 지표 쇠약

실제로 올해 나타난 각종 건설 지표들을 보면 내년 건설자재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전자재 수요의 선행 지표라 할 수 있는 건축허가면적, 건축물 착공 실적,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건설공사 수주 실적 등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우선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의 건축허가면적 누계가 7,809만 1,000㎡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나 줄었다. 특히, 비주거용의 실적이 4,995만 7,000㎡로 5.2% 감소한 데 비해 자재 수요가 많은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 면적은 무려 16.0%나 감소한 2,858만 4,000㎡에 그쳤다. 건축물 착공 면적 역시 6,677만 7,000㎡로 4.2% 줄었다. 주택 인허가 실적도 32만 1,177가구로 22.6%나 감소했다. 또한, 8월까지의 건설공사 수주액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4.2% 감소한 51조 8,604억원에 머물렀다. 금액으로는 16조

5,773억원이 줄었다. 이 같은 선행 지표들이 급격하게 개선되지 않는 한 전자재 수요는 감소가 불가피하다. 8월 말까지의 지표, 특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민간부문의 경기가 깨어나지 않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전자재의 감소폭은 의외로 커질 수도 있다. 다만 여전히 철근이나 시멘트, 레미콘, PHC파일 등 자재 생산업체들의 공급 능력이 넘치고 있다. 수급 문제보다는 가격 등의 문제를 놓고 생산업체들과 건설사들이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동양 사태, 엔저 현상, 전기료 추가 인상 등 변수가 작용할 경우 가격을 둘러싼 공급자와 수요자 간 충돌이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시멘트 가격 인상 추진 가능성

시멘트와 시멘트 2차 제품인 레미콘, PHC파일 등의 경우 동양그룹 사태의 여파를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생산이나 공급, 가격 등의 분야에서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시멘트업계는 물론 레미콘 등 시멘트 원자재 비중이 높은 2차 제품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시멘트의 경우 전체 생산량이 다소 줄어들면서 나머지 업체들간 영업 경쟁이 올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동시에 시멘트업계의 판도에도 변화가 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시멘트업계는 연중 가격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인상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만큼 내년에는 보다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료, 운임 등 인상 요인이 있는 데다 1,000억원이 넘는 누적 적자를 해소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다. 수요 패턴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원가가 싼 슬래그 시멘트 등 혼합 시멘트의 사용량이

특집 2014년 건설경기 전망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연간 수요는 올해보다 5% 가량 줄어든 4,180만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 레미콘 수요 바닥

레미콘시장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의 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수도권 수요를 견인해 왔던 인천 지역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이 예정돼 있는 일부 지역은 수요가 늘어나는 등 지역별 약간의 편차도 예상된다. 레미콘 역시 내년 봄 성수기 이전에 가격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시멘트업체들의 시멘트 가격 인상이 관철될 경우 레미콘업계 인상 요구 폭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시멘트사와 레미콘사, 레미콘사와 건설사 간 가격 문제를 놓고 한바탕 싸움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건설업계와 시멘트업계, 레미콘업계 모두 업황이 좋지 않아 대립이 첨예해질 수도 있다. 건설사는 수급 논리, 시멘트 및 레미콘업계는 원가 논리를 들고 나올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건설사와 레미콘사 간에 채널이 공동되고 있어 공급 중단 같은 물리력이 동원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레미콘 수요는 1억㎡를 밑돌 가능성이 농후하다. 올해보다 4~5% 감소한 9,600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난 PHC파일 공급 능력... 독이 될 수도

PHC파일의 수요도 감소가 불가피하다. 올해보다

2014년 주요 건설자재 수요 전망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철근(만t)	830	800	780
시멘트(만t)	4,510	4,400	4,180
레미콘(만㎡)	10,700	10,000	9,600
PHC파일(만t)	520	460	420

주 : 2013년 및 2014년은 추정치임.

8% 정도 감소한 420만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변화도 예상된다. 그동안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400mm, 450mm의 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반면 500mm, 600mm 등 중대구경의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700mm 이상 대형 규격의 제품도 꾸준히 공급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별로는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의 수요가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마곡지구를 비롯한 강동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국지적인 수요 쏠림 현상도 예견된다.

업계 판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양의 3개 공장에서 얼마만큼 물량을 쏟아낼지가 핵심이다. 신규로 설립된 공장들도 본격적으로 시장에 가세한다. 자칫하면 수요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급 능력은 늘어나는 최악의 시장 구조를 띠게 될지도 모른다. 가격은 건설사들과의 협상을 거쳐 결정하게 되지만 올해 수준을 유지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철근 가격 힘겨루기 심화될 듯

철근시장도 공급 과잉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제철을 비롯해 동국제강, 한국철강 등 국내 전기로업체들은 가격을 놓고 건설사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한다. 가격 협의체를 통해 거래 가격을 결정하지만 그 과정이 올해처럼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강사들이 전기료 상승 등의 이유를 들어 인상을 요구하나 수급 논리를 앞세우는 건설사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1년에 한번 협상을 하는 시멘트나 레미콘 등과는 달리 매달 가격을 결정해야 하는 품목의 특성상 양측의 싸움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수요는 올해보다 3%안팎 감소한 780만톤이 될 것으로 보인다. CERIK